

2018 년 12 월 30 일 “복음의 여정(12) 참 자신의 발견”(눅 15:11-32)

<도입>

하나님은 사람을 잃으셨고, 사람은 자기 삶을 잃었습니다. 자기 삶을 잃었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또 자기 삶을 되찾은 사람은 어떤 길을 걷게 될까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알면** 대처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을 잃어 직장/가정을 돌볼 수 없었지만 다시 회복되면 삶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잃은 것이 분명하면 좋지만, 사람은 성품과 안목과 방식에 있어서, 또는 감정 세계나 관계성 안에서 잃은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잃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 이유를 모른 채 삶이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1] 두 아들의 다른 시작, 다른 과정

둘째 아들. 그는 아버지 집의 안정적인 삶이 지루해서 자기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모험심 측면에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산으로 받은 재산을 탕진합니다. **13 절**. ‘허랑방탕하여’ (=구원될 소망 없이) 무절제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자기 삶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이 실패자는 바닥에서 제정신으로(스스로) 돌아옵니다. 빌어먹어야 했던 중에 새 삶을 그리게 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 나를 품꾼의 하나로...” (17~19 절) 품꾼으로 허락된다면 이보다 잘 살 수 있다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살고 싶어 집니다.

자기 삶을 살고 싶어서 아버지 집을 떠났는데 지금은 또한 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온 아들을 맞은 아버지는 잔치를 베풁니다. “먹고 즐기자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15:23-24)

분개한 맏아들. 그는 집에서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 자기 자리와 관계를 지킵니다. 지키는 것이 반듯하게 사는 길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던 그에게 일어난 충격은 집 떠났던 동생이 돌아옴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때 분노가 솟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자기 내면의 실상이 무엇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동생의 고생이 속상해서 나온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어서 입니다. **29 절**(읽음). 이것이 그의 속내입니다. 불공평하고, 어처구니 없는 아버지의 처사를 보고 화가 났습니다. 여기서 맏아들에 대해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명을 지키는 삶이 행복하지 않았습니. 말만 지키려는 피상적 순종 안에서 아버지는 어떤 마음의 존재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명을 순종하는 삶이 축복임을 몰랐습니다. 그의 숨은 바람도 동생처럼 대우 받고 친구들과 즐겁게 잔치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바람과 욕구를 억압하며 말씀을 지키려고만 하면 맏아들처럼 분노하기 쉽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즐거움과 재미를 솔직히 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은근히 원하고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바른 사람이라는 자부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 사람보다는 낫다는 비교로부터 온 허탈한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회복하면 건강한 자부심이 생깁니다.

둘째 아들	맏아들
살고 싶어 집을 떠남	명을 지킨다며 집에 머물
자신을 잃음	기쁨을 잃음
종속적 의존	자기 잣대(에고의 팽창)
아버지 집을 그리워함(제정신)	아버지에 대한 환멸(분노)
옛 자기 포기 - 집으로	에고의 동기가 폭로됨 - 집 밖에 머물
아버지 잔치에 동참	아버지 기쁨에 동참 못함

[2] 무엇을 잃었는가?

이 비유의 포인트는 아버지는 두 아들에 대해 어떤 분이냐는 것에 있습니다. 두 형제 모두 자신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존재'임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자신을 잃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에 대한 기쁨은 삶을 새롭게 만들 거라는 소망을 주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형제 다 그런 미래를 꿈꾸지 못합니다. 비유는 open end 로 마칩니다.

이 두 아들에 대해 안셀름 그윈은,

"... 두 아들은 각자의 방식대로 죽었고 자신을 잃었다. 한 아들은 방탕한 생활로, 다른 아들은 소심한 바른 생활로 자신을 잃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우리 안에서 참 삶을 찾으라고 우리를 삶에 초대하시고, 다시 찾은 삶에 대하여 기뻐하라고 기쁨의 축제에 초대하신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잃은 '나'는 무엇인가?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바람, 욕구, 고정화된 방식, 감정, 습관에 의하여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만 바라볼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진리에 입각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기껏, 난 이런 생각과 원칙과 방식을 사는 사람이라고 소개할 뿐입니다.

'진정한 나'를 찾는다는 뜻은 조건이나 성취를 불문하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나'를 찾는 것이고, 이 '나'가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사람의 인정을 받을 때는 괜찮은 사람 같고, 반면 잘 못 하면 무가치한 존재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마음의 병(미숙)을 가져옵니다.

실수하고 잘 못 해도 자책/비하하지 마십시오. 단,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극복해야할 지를 주님께 정직하게 의탁하세요. 자책/비하는 수치와 열등감의 굴레 속으로 계속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용기 있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나의 기뻐하는 아들, 딸'이라는 자신을 찾게 됩니다. 거기서 나의 참 나 됨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여정에서 일어나는 축복의 일입니다.

<맺음>

아버지께서 나를 자비롭게 여기시며 맨발로 나와 맞으시는 아들, 딸이라는 사실을 중심에서 양보하지 마십시오. 실수나 잘못, 아픔,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이 진리로부터 새롭게 빛어지는 자신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나는 두 아들 중 어느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까?
2.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두 아들에 대한 나의 생각을 말씀해 보십시오.
3. 나는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정체성'을 찾았습니까? 찾았다면 어떻게 살기로 결단하십니까?